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9.23.(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연구팀)	소 장	김성곤 (031-8008-6500)
		팀 장	임성률 (031-8008-8366)
		담당자	설강수 (031-8008-8345)

경기도, 새조개·우럭조개 31만 마리 화성 도리도 갯벌에 시험 방류

○ 23일 남해 고급 패류 '어린 새조개, 우럭조개' 경기 연안에 정착 시도
○ 대하·주꾸미 이어 신품종 방류 확대. 바지락 300만 마리 방류 예정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3일 화성 도리도 갯벌에 새조개 1만 마리와 우럭조개 30만 마리를 시험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주로 남해안에 서식하는 어종이 기후변화로 경기 연안에서도 관찰됨에 따라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소득 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류된 새조개와 우럭조개는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고 질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조개와 우럭조개는 고소득 패류로 꼽힌다. 최근 소비 수요가 늘었지만 생산량이 적어 kg당 각각 약 5만 원, 1만 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로 유통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새조개와 우럭조개가 도내 고소득 신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공종자 연구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수산자원을 발굴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대하, 주꾸미, 갑오징어, 꽃게 등 4품종 16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오는 11월에는 바지락 30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경기도